

Financial Inclusion & Digital Innovation



금융 포용 및 디지털 혁신

2015년 OECD 세계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7배에서 최근 (2013년) 10배에 달하면서 빈부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의 44.9%를 차지(World Top Income Database, 2012년 기준)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서민금융 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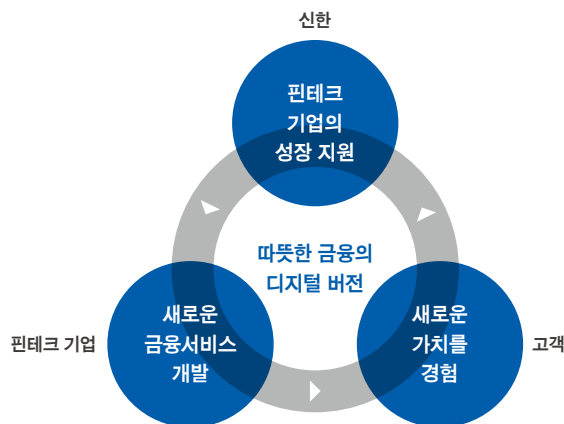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의 생태계, 퓨처스랩

글로벌 금융서비스 시장은 쉽고, 빠르고,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기업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위기가 아닌 서비스의 혁신과 고객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핀테크 기업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퓨처스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론칭한 퓨처스랩은 핀테크 기업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신한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공동으로 고객을 위한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퓨처스랩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주요 그룹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연 2회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협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부서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멘토단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사무공간, 테스트 장비 등 인프라와 기업 운영을 위한 투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신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현지 내 협조 등을 지원합니다.

신한퓨처스랩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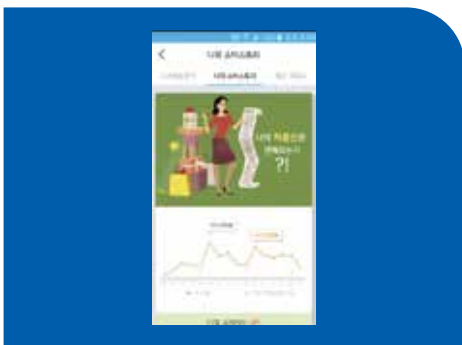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단기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성 기간 이후에도 기간의 제약 없이 협력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3기의 운영기간 동안 현재까지 총 40개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여 12건의 공동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약 59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폭발적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지 수요 증대에 착안해 2016년 '신한핀테크스랩 베트남'을 출범하였습니다.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입주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전문가와 국내 글로벌 멘토 그룹을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및 협업에 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FAN페이봇



신한카드 'FAN페이봇'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서 서비스입니다.

M-폴리오



M-폴리오는 국내 은행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원어디가



'학원어디가'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분석한 '서울대로드맵'과 결합하여 학원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회사의 본업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창업, 성장, 성숙·글로벌 단계에 따른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금융을 포함한 창조금융지원, 외부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장기거래 기반 성장 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 중장기 자금공급에 힘쓰고, 특화 IB 솔루션 제공 및 TCB 기반 직간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글로벌 단계에서는 해외진출과 사업 다양화 관련 금융 니즈에 초점을 두고 특화 IB 솔루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계형 투융자복합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서비스로는 성장 단계에 따라 해외진출 지원, 세무 및 경영진단 컨설팅, 창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 2세 경영인 육성을 위한 MIP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과 구조조정 및 일자리지원 특례보증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장 지원, 신한 상권시스템활용 상권컨설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금융 서비스와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 24시간 모바일 여신 지원이 가능한 SOHO스피드업 보증서대출 출시 등으로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기 힐링 프로그램 :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대출기간 재조정, 대출이자유예 등을 포함한 서비스

기술금융 지원 (기술신용평가 대출)

16,356 개사 **7.9** 조 원*

*누적 9.5조 원

관계형 금융*

964 개사 **5,525** 억 원

*기술력 및 사업전망 정보를 활용한 자금지원

신한금융투자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거래처 및 관계회사 등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건설, 의류, 중장비 등 각 분야에 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운영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을 지원하고 난 후에도 대상 기업을 지속해서 관리 및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가족친화기업 지원

여성기업과 가족친화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신한 여성기업 성공지원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신한 여성기업 성공지원대출은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법인 중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 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여성 연구개발인력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신한은행은 서민과 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은행권 공동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2016년 4,718억 원 지원하였고, 같은 해 10월 누적 취급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민의 신용양극화 및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595억 원을 지원하였고, 은행과 제2금융권간 연계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 '신한저축은행 허그론 연계 서비스'와 서민 금융 대출 중개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에 각각 621억 원과 7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과 더불어 서민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6,32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전적 채무조정 개념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대출뿐 아니라 서민전용 수신상품인 '새희망적금'을 운영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과 서민금융 대출상품 원제 고객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잔액은 3,531억 원입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 지원 실무협의회의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게 약 46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금융감독원 주관 서민금융 지원평가 최우수은행을 4년 연속(2013~2016) 수상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저신용, 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을 소액대출을 통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원인원 1,617명, 지원금액 178 억 원으로 2009년부터 누적으로 총 8,983명에게 1,20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재난 구제 금융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지진, 태풍, 화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긴급 재난 구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재난을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긴급 운전자금 및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신한생명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등을 6개월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는 긴급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지진 피해 중소기업 긴급운전자금 지원금액

500억 원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배려

신한은행은 장애인 고객과 외국인 등 우리 주변의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बैं킹 서비스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고 더 세심한 배려로 다가가자"는 마음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의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황별 응대 서비스, 외국인 전용 콜센터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OTP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거점영업점 안내 등 다양한 응대 지침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담아 누구나 어려움 없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웹접근성 인증 및 보이스 ARS 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고령층과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 전용 상품설명서 제공, 해피콜 및 VOC 처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교육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본업에 기반한 사회 기여를 위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금융문맹 퇴치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신한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체험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과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 진로직업 현장체험'을 통해 건전한 금융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005회의 금융교육을 통해 총 111,232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름인 금융교실

신한카드는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함양을 목적으로 '아름인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연간 30회 이상 방문해 약 300여명의 초등학생을 교육하였으며, 8,71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름인 금융탐험대'도 임직원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금융캠프

신한금융투자의 '따뜻한 금융캠프'는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금융 증권 상식을 제공해 장래 직업 선택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한국거래소 방문, 금융투자업 현장 강연, 신한금융투자 주요부서 견학 등 금융투자업의 역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신한 해피실버 금융교실

신한생명의 '신한 해피실버 금융교실'은 금융취약계층인 고연령 소비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재무, 자산관리, 안전한 금융이용법과 각종 금융사기 사례 등을 다루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총 25,596명을 교육하였으며, 2017년에는 투자, 절세 정보 자문위원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사회의 가치를 키워가는 단비 '새희망홀씨대출'



요양복지사로 근무하는 이영옥 고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택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차량의 고장으로 환자분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한은 'MY CAR 중고차 대출' 상품을 추천했으나 이영옥 고객에게는 차량계약금, 차량보험비, 소유권 이전비로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의 사정을 고려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유리한 씨니마이카(새희망홀씨) 대출로 차량구입비용을 사용하고, 차량보험비나 이전비 등 남은 금액은 새희망홀씨 대출로 충당하실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이영옥 고객은 다행히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자금·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은 서민 및 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2016년 4,7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실천모델 제시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개월간 서민금융 지원수기를 공모하여 총 80여 편을 접수하여 우수작을 시상하였고, 공모 작품 중 선별하여 서민금융 미담사례집 '새희망홀씨의 기적'을 발간해 따뜻한 금융 실천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